

영국 런던 BIT (The Behaviour Insight Team) 해외 기관 소개 및 출장 성과보고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연구위원)

1. BIT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bit.team.

2.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구체화된 바 있었는데, 2015년 9월 1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행명령 13,707호(Executive Order #13707)에 근거하여 사회행동과학팀(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 (SBST))이 설립된 바 있었다.

필자는 단기해외체류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16일까지 약 한달 간 영국 런던에 머물며 영국 국책연구기관인 BIT(The Behavioural Insights Team)¹ 에서 방문 연구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늘 쫓기듯 한 국내 연구 생활의 단비와도 같은 경험이었기에 그 체류연구의 체험을 더욱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한 달간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런던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BIT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위치는 그야말로 런던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영국정치권력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사원과 버킹검궁전, 수상의 관저이자 집무실인 다우닝가 1번지가 바로 지척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 정부 부처와 대법원, 관공서들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7년에 수행했던 기본과제 “환경규제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를 하면서 책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서 부터였는데, 행동과학에 입각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 공동체의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만드는 작업이 ‘행동’에 대한 고려와 통찰이 없다면 그 법이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필자의 오래된 문제의식이었다.

BIT는 바로 인간 행동에 기반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은 정책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연구소이다. 미국의 법경제학자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교수와 하버드대 법대 교수, 캐스 선스틴(Cass Sunstein)이 같이 쓴 “넛지(Nudge)”이론을 현실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영국 캐머런 총리의 제안을 통해 2010년 내각청(Cabinet Office) 내에 설립되었다.² 그 이후, 2013년 영국 내각,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연구소 구성원들의 공동지분에 의한 유한회사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구체화된 바 있었는데, 2015년 9월 1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행명령 13,707호(Executive Order #13707)에 근거하여 사회행동과학팀(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 SBST)이 설립된 바 있다.

필자는 연구소에 머무는 동안 이 연구소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Richard Thaler교수의



BIT연구소와 Dr. Mark Egan(BIT)



Richard Thaler교수(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그의 재미있는 생각만큼이나 유머와 유쾌함을 지닌 상품의 소유자로 보였다. ‘넛지’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비합리적 요소가 오히려 강력한 행위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파한 공로로 Thaler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주기도 한 이론임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을 것이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넛지’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라고 하자, 본인도 알고 있다며, 일전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는데, 어떠한 사정인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였다. 한국인들의 성향을 볼 때, 한국은 ‘넛지’이론에 대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일 텐데, 언젠가는 Thaler교수를 한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이 연구소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자유스러우며, 창의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생활 분위기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또 협력적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유로운 대화와 여유의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한 개인의 자유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주되, 업무는 연구목표를 위해 초점이 분명히 이루어져 있어, 시간과 비용의 이용은 거품이 별로 없어 보였다.

비록, BIT에 법 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었으나, BIT의 연구영역은, 보건과 삶의 질, 교육과 훈련, 내무, 에너지·지속가능성·소비, 생산성과 성장, 기부와 사회활동, 사기·부채 감소, 지방정부,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쳐 있어, 종합정책연구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필자는 머무는 동안 필자의 관심과 연구에 맞는 연구자들과 매칭되어 그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실제로 그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회의에도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소가 일관되게 내세우는 것은 행동과학이라는 방법론이었다. BIT의 연구방법은 단순한 변화가 정책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여러 모델을 두고 실제 실험을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한 후, 정책개선안으로 제안 및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거의 모든 소속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에 매료되어 BIT에 오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 연구방법론은 매우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었다. 매 프로젝트의 실험방식은 다양했으나, 정책에서 의미있는 행위를 찾아내고, 각 정책대안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정책연구에 더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경제적 분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적 접근은, 대량의 인간행동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처리와 현실에 대한 모의적 실험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빅데이터 연구활용을 위한 연구소 내 전문 팀을 구성하였다.

제임스 로런스(James Lawrence)가 이 팀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수학과 통계를 전공한 전문가로 주로 민간영역에서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다년간 종사하였으나, 사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BIT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회의를 통해 데이터분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궁금했던 문제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BIT내 정보과학팀은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컴퓨터, 통계, 등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BIT 정보과학팀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은, 정보를 통해 미래예측을 수행하는 Predictive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상화된 공간에서 인간행위의 반응과 패턴을 적용, 분석하는 정책실험을 매우 비교적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필자는 머신러닝과 텍스트마이닝 등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BIT의 연구자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하였다. 머신러닝에 의한 인공지능개발에 있어 중요한 점이면서 극복해야 하는 비판적 요소는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인종, 성별, 지역 등에 의한 차별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머신러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사실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러한



James Lawrence (BIT)



Thinkgroup회의: Hubert Wu, Carolin Reiner 외 (BIT)



차별적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적 수단이 되는 자연어분석은 예상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해당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구조화된 주제언어 모델인 키워드나무 등에 의한 도움으로도 도출되어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하는 경우의 300배(하루에 5시간 소모시) 이상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에 향후 기계적 처리가 많은 수작업형 연구과정을 대체해 나가겠구나라는 강한 직감이 몰려왔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인데, 개인정보의 경우 EU의 일반적인 정보보호규칙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적용을 받으며, 연구과정에서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보호장치(제22조 제3항)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궁금사항인 법 영역에서의 데이터과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는 현재 범죄나 방법, 법 위반 등에 있어 미래예측적 수단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미래예측에 관한 접근방법 외에 다른 방식의 분석목적과 또 다른 법적 영역에서의 적용방식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역시 이 분야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열려 있는 영역이라고 나름 결론을 내렸다.

그밖에, 한국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Mark Egan박사는 BIT에 머무는 동안 여러 연구진들과의 회의를 주선해 주었다. 특히, 주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독일출신의 캐롤린 라이너(Carolin Reiner)는 이지적이고 당찬 여성 연구자였는데, 필자의 연구를 위해 행위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 주었다.

또한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팀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PM이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며, 팀성원들이 구글 Docs를 이용하여 회의실에서 실시간으로 공동문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즉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짧은 시간의 회의에서 연구내용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필자는 향후 BIT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력방안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담당 업무를 하는 연구자들과의 회의도 수행하였다. 연구소장인 데이빗 헬퍼(David Halpern, Director, BIT)박사, 국제협력프로그램팀의 팀장인 루크 레벤스크롭트(Luke Ravenscroft, Principal Advisor, Head of International Programmes, BIT)박사, 지금은 영국 환경부에서 근무하게 된 루이스 카모디(Lewis Carmodey)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한국의 정책연구나 국제프로젝트 등에 대해 가능한 협력방식에 대해 상의하였다. 향후 우리 연구원이 행동과학에 대해 보다 적합한 연구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과의 협력이 장래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한 채 한 달간의 체류연구를 마치게 되었다.